

섬유기업의 저탄소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4. 2. 6.)



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려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, 2월 7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「'24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2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섬유산업은 제조업 중 철강, 석유화학, 광물, 시멘트에 이어 온실가스(이산화탄소)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서, 특히 원단제조 및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이상의 탄소가 배출*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*전세계 섬유산업 탄소배출 10.25억톤(100%, 공정순) : ①원료 생산 2.41억톤(24%) → ②원사·실 제조1.56억톤(15%) → ③원단제조 및 염색 5.36억톤(52%) → ④완제품제조0.91억톤(9%) (출처 : WRI(WORLD RESOURCES INSTITUTE) "Roadmap to Net Zero:Delivering Science-Based Targets in the Apparel Sector" (2021년 11월))

- 공기압축기, 염색기, 건조기, 텐터기(천의 폭을 팽팽하게 펴서 말리거나 다리면서 원단을 뽑아내는 기계) 등이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설비이다.
- 최근 글로벌 섬유패션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저탄소화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섬유기업들은 대부분 중소·영세업체들로서 이러한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.
- 이와 관련, 산업부는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·중견기업은 비용의 70%, 대기업은 50%까지 지원하며,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의 컨설팅(자문)을 받을 수 있고, 기업이희망하는 경우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.
-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)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(www.textr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